

마루터기

주지 카메라테스트

서지우

010-3343-3641

chobapkiller@gmail.com

시놉시스

범석은 절에서 자란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로 학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공양주 보살 미영이 ‘엄마 역할’을 해 왔다. 고3 겨울이 되는 해, 미영이 범석에게 무심코 “진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죄책감으로 절을 떠나겠다고 하자, 스님은 이를 범석에게 알리게 되고, 범석은 미영을 찾아갔다가 미영의 비밀을 알게 된다.

등장인물

서범석 (18세, 여) : 어릴 때 엄마에게서 버려져 절에서 자란 남자아이이다. 절에서 산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어 그 사실을 남에게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외용 엄마인 미영을 만나며 자신감이 생겼고, 미영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 미영이 일을 그만두며 스님과 갈등하고, 자신의 가족에 대해 생각한다.

주지 (50세,남) : 범석이 어릴 때부터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범석을 키워온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범석을 아끼지만 어릴 적 범석의 트라우마 때문에 범석을 조심스럽게 대한다. 생각의 차이 탓에 범석과 갈등한다.

김미영 (47세, 여) : 아들을 잃고 정신 수양을 위해 공양주 보살로 절에 들어가며 죽은 아들과 비슷한 나이대인 범석과 친해지게 된다. 주지의 부탁으로 범석의 대외용 엄마 역할을 수행하지만, 범석에게 말실수를 하여 공양주 보살 일을 그만둔다.

시나리오

S#5 주지의 방

불교 용품들이 걸려져있는 방, 책장에는 불교 경전과 시집이 가득하다. 주지의 책상에는 염주와 범석이 유치원 때 주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져있다. 주지가 책상에 앉아 안경을 낀 채로 낱자를 정리하고 있던 중, 미영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주지 : 여보세요? 아까 인사도 못하고 가셔...

미영 : 스님. 저 그만 뒤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주지 : 이렇게 갑자기요?

미영 : 범석이한테 말실수를 했어요. 제가 더 있으면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져요.

주지 : 말실수라면...

미영 : (뜸을 들이며) 범석이한테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주지는 미영의 말을 듣고 대답하지 못한다.

미영 : 건강하게 지내세요. 범석이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주지 : 네. 알겠습니다.

S#7 범석의 방

좁지만 책상, 침대 등 가구들이 공간을 채워넣어 아늑해 보이는 방. 책상에는 정리가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범석은 손으로 쓰레기들을 한쪽으로 치워놓는다. 범석은 책가방을 내려놓고 책가방에서 프린트 더미를 꺼내 책상의 빈공간에 올려놓는다. 범석은 프린트 더미를 확인하려다가 핸드폰을 들어 미연과의 연락을 다시 확인한다.

범석 : 들어오세요.

주지 : 뭔 이상한 거 보고 있었냐.

범석 : 아니에요. 그, 보살님이 연락이 안 되는데...

주지는 범석의 말을 듣고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 범석은 주지를 한 번 더 부른다. 주지는 말을 하려다 주저하기를 반복한다.

범석 : 스님?

주지 : 그만둔다고 하셨다.

범석 : 뭘요?

주지 : 보살 일을.

범석 : 이렇게 갑자기요?

주지 : 그래.

범석 : 언제 그만두셨는데요?

주지 : 너 학교 갔다 온 날에.

범석은 언성이 높아지고, 혼란스러워 하며 주지에게 말한다.

범석 : 왜 바로 말씀 안 하셨어요?

주지 : 얘기해서 좋을 게 없었다.

범석 : 이건 저랑 보살님 일이잖아요.

주지 : 보살님께서 당부하셨어. 말하지 말아달라고.

범석 :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범석은 말을 하려다가 멈추고는 등을 돌리고 미영에게 전화를 건다.

주지 : 안 받으실 거야.

범석은 개의치 않고 전화를 몇 번이고 시도한다.

주지 : 안 받으신대도.

범석 :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지 : 너의 엄마는 그분이 아니잖아.

범석 : 그럼 누가 내 엄만데요?

범석은 다시 등을 돌려 주지를 바라본다.

범석 : 스님이 제 부모는 아니잖아요.

주지는 말 없이 바닥을 바라본다.

주지 : 그렇게 생각하면 보살님이라도 뵙고 와.

범석은 겹옷을 챙기고, 주지를 지나쳐서 나간다. 주지는 방 안에 혼자 남겨져있다.